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특별기고문

여자(女子)운수 조을시구(肇乙矢口)

격암유록에는 여자운수(女子運數) 조을시구(肇乙矢口)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의 여자는 세상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격암유록의 주인공은 정도령이니 정도령을 묘사하는 글이다.

여(女)는 아들을 지긋이 바라보고 있는 여인을 상형한 글자이며 자(子)는 여인의 아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女)와 자(子)를 합하면 좋을 호(好)자가 된다. 여인이 안고 있는 아들을 지긋이 바라보는 모습이 가장 평화스럽고 자비로우며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좋을 호(好)자가 되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중천의 천지공사가 끝나면 불사영생의 지상천국이 이루어져

천국회복을 위한 육도삼락운행지도
를 보면
선천 1도 복희, 2도 문왕
후천 3도 수운, 4도 화운
(水雲 최재우) (火雲 강일순)
중천 5도 목운, 6도 금운
(木運 박태선) (金運 조희성)의
천지공사가 진행 중이다.

중천의 천지공사가 끝나면 불사영생(不死永生)의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 5도 목운이 전도관(傳道館)을 세워 6도 금운에게 도(道)를 전하고 금운이 천국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금운에게 전한 도는 유훈선 함입의 도이다. 강중산 선생 사후(死後)에 오는 두 사람이 바로 목운과 금운이다.

격암유록에서는 궁공과 을음이 된다. 5도 목운이 궁공이요, 6도 금운이 을음인데 금운이 목운으로부터 도를 전해 받으면 6도 금운이 궁공을 음이 된다. 전도관 시절 목운 박태선을 영모님이라고 불렀고 영모(靈母)란 영적 어머니이니 영적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요, 영적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곧 도를 전한다는 의미이다.

하락영인생자녀(河洛靈人生子女)라는 말도 하락영인 즉 하도낙서의 이치에서 신령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영적으로 아들과 딸을 낳는다는 말이다. 같은 의미로 십인생산 일남일녀(十人生產一男一女)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서 일남 일녀를 생산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궁공으로 상진사(上辰巳)이며 일녀가 을음로서 중진사(中



▲ 승리제단 입문 새식구 21일 교육 가운데 고서 강의 중에 내린 백색의 성광 같은 감로이슬

辰巳)이고 일남이 을음로서 하진사(下辰巳)가 되어 삼신일체 삼위일체가 된다. 하진사 속에서 상진사 중진사 하진사가 하나가 되니 이른바 동해 삼신이요 삼신산이 되는 것이다.

'조을시구'라는 말은 을(乙)을 알아야 중천의 주인공 금운 정도령을 만나게 되어 죽지 않고 천국 생활한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천국이 되는 에덴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세 분이 하나가 되어 살고 있었는데 마귀를 의미하는 영적과일 선악과를 먹고 아담, 해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되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패하였다는 것이요(天神負而地鬼勝)' 그래서 하나님이 철천지원수인 마귀를 소탕하여 마귀에게 빼앗긴 아담 해와를 다시 찾아 죽을 없는 지상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해를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라(제사독12:1)'고 하였다. 해를 입은 여인이 하락영인인인, 심승인이요, 영적 어머니(영모)이며 그 아들이 만국을 다스리게 되니 곧 만왕의 왕 구세주가 되어 지상천국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해를 입은 여인이 글제목의 여(女)에 해당되고 자(子)가 만국을 다스리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육도삼락 운행지도에서 6도 금운을 여자선신(女子仙神)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영모가 궁공이 되고 그의 영적 아들이 을음이 되며 도를 전해 받아 하나가 되면

궁공을 정도령 구세주가 된다. 글제목의 다시 보면 을시구라는 말에서 시구(矢口)는 알 지(知)자를 풀어 쓴 것인데 을을 알아야 한다. 그 가르침을 잘 따르면 앞으로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천국에서 살 수 있으니 '조을시구'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태초에 아담과 해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삼위일체로서 천국에 거하였으나 생명인 하나님과 사망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아담 해와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마귀가 좌정하였다는 말이 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되었던 것이다.

아담 해와를 되찾으려면 마귀를 이겨야 한다. 하나님이 마귀를 완전히 이겨 아담 속에 좌정하게 되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마귀를 이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을(乙)이 되는 둘째 아담 속에 좌정하게 되니 바로 궁공을 정도령 구세주가 된다.

그러하여 궁공을 정도령은 마귀와 싸워 완전히 이겨서 '이간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승리제단'을 세워 불사영생의 진리를 선포하고 세계만민에게 전하는 것이다.

무궁조화의 권능이 있는 감로해인은 살마광선이요 삼신산의 불로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긴 바 되라(고린도전서 15:54)' 이는 썩을 것이 썩고 죽을 것이 죽는 이때에는 생명인 사망에 삼긴 바 되어 있는 까닭이냐라는 뜻이다. 이제 거꾸로 심승인 인간자에 의해 죽는 세상이 안 죽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 천지개벽이다.

생명인 하나님과 사망인 마귀를 이기면 죽을 없는 세상이며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면 죽는 세상이라는 말이다. 인간 속의 주체 영이 바로 선악과 마귀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죽을 신 마귀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도령을 만나야 할 이유이다. '성경신(誠敬信) 석 자로 닦으며 진심으로 고대하면 참사람을 만나리라.' 그 참사람 진인(眞人)이 바로 정도령이며 '만날 사람 만났을 적에...'라고 하는 말도 정도령을 가리킨 말이고, '여광여취(如狂如醉) 저 양반을 간 곳마다 따라가서...'라는 것도 정도령을 말한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불사영생의 진리를 설교하는 모습을 마치 미친 듯 취한 듯하다고 형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정도령은 단지 이론만 정교하고 그럴듯한 말씀만 한 것이냐? 아니다. 무궁조화(無窮造化)의 권능이 있는 감로해인을 들고 나온다. 감로해인이란 살마광선(殺魔光線)이요, 죽을 신 마귀를 죽여 더 이상 죽을 없게 하는 권능을 가진 것이요, 불사영생의 신선이 먹고 사는 영물(靈物)인 것이다.

따라서 감로해인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정도령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사망권을 가진 마귀를 소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동해삼신 불사약(不死藥), 삼신산의 불로초(不老草)는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일일삼식기아사(一日三食飢餓死) 삼순구식불기생(三旬九食飢飢生)'이라고 하였다. 세상 밥은 하루 세끼 먹고 살아도 마지막에는 굶어 죽는 것이요, 감로해인은 삼순 즉 30일에 아홉 번만 먹어도 굶주리지 않고 장생한다는 말이다. 그 감로해인을 내려주는 분이 정도령 구세주인 것이다. 정도령을 만나도 감로해인을 받아먹지 못하면 불사영생은 없는 것이요 감로해인을 받아먹지 못한다는 것은 정도령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실로 정도령을 만나지 못했다

는 것이다. 갑진년(甲辰年)에는 반드시 정도령을 만나 감로해인을 받을 수 있는 갑진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53
myunghpark23@naver.com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78>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힘든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도 무릎이 아픈 것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무처럼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것은 아니다. 완전히 나무처럼 됐다고 해서 다 된

줄 알면 그건 착각이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 즉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것을 의식하려야 의식할 수 없는, 내가 집 안에 있는지 집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삶

대우(待遇)와 신뢰(信賴)

대부분의 지도자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이 판단한 수준에 따라 대한다. 성과가 좋은 직원에게는 그만큼의 칭찬과 보상이 있을 것이지만 실적이 없고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에게는 질책과 징계가 따를 것이다. 그런데 평소 지도자가 직원들을 대할 때에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의 장점을 칭찬하며 차등 없이 대한다면 좀 더 심기일전(心機一轉) 할 수 있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반면 직원을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해 일반적인 보통 수준의 대우를 한다면 그들은 그에 걸맞게 행동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사람들은 대우받은 만큼 행동한다. 10점 만점의 노력으로 보답할 것이다. 반면 비판받은 분위기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없다. 지도자가 자신을 믿지 않으면 귀신처럼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게 된다.

지도자 또한 마찬가지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신뢰받도록 움직여야 한다.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부하직원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임을 아는 사람이다. 부하직원들이 우수한 직원이 되도록 돕는다. 좋은 상사란 친구요, 스승이요, 코치이며 동맹군이 아닌 '영감의 원천'이라고 한다. 좋은 부하직원이 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좋은 상사가 되기 위한 노력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좋은 상사가 되기 위한 제 1원칙은 직원들의 성공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 잘하는 직원은 주어진 업무를 빈틈없이 제 시간 내에 잘 해낸다. 이런 직원은 물어볼 것도 없이 좋은 대우를 받는다. 예쁜 것하면 귀여움받고 미운 것하면 눈총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업무 외에도 상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내거나 스스로 납득한 창의적인 방안을 만들고 해결해 내는 직원은 당연히 특급 대우를 받게 된다. 한 조직의 리더로 성장하는 탁월한 인재들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 상사를 그 일에 끌어들이 수 있는 인재들이다.

좋은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의사를 존중할 때 가능한 것이다. 상사가 상명하복(上命下服)을 강조하며 무조건 복종할 것을 강요하거나 직원이 건의한다는 명분으로 상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발전적이지 못한 행태이다.

상사와 직원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상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조직의 법이다. 직원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하여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사는 조직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직원은 상사의 지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실이 준행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하여 건의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하여 업무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조직의 최고 책임자 및 간부 그리고 직원들이 상호 신뢰(信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이끌어 주고 밀어주는 유기적인 관계로 조직이 운영될 때 그 조직은 전체가 주인의식을 가진 승승(勝勝)의 조직이 되는 것이다.*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완벽하고 조리 있는 설교를 할 수 없어



▲ 승리회보 제94호 1면 헤드라인 캡처

1987년 9월 5일 제4차 세계 전도 순방길에 오르신 이간자 조희성님은 첫 도착지 미국 뉴욕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하셨다. 그 당시 미국 뉴욕방송국 KTC(The Korean Channel)에서 조희성님은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2시간 분량에 해당하

는 방송녹화를 성공리에 마쳤고, 2시간에 해당하는 방송녹화분량을 30분씩 4회로 편성하여 1차로 1987년 9월 27일에 TV방영되었고 2차는 10월 4일에 방영되었고 3차는 10월 11일, 4차는 10월 18일에 연재로 방영되었다.

당시 방송국에서 있었던 이간자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말씀] 여러분들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신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하면서 살아보예가 없습니다. 단상에서 서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염려하면서 단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항상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 입에 말씀을 담아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련 설교를 5면, 6면, 8면 전격 게재》

— TV방영 총4회 중 첫회분 영문번역 —

설교는 하지만 설교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뉴욕방송국에 가서 방송할 때, 우리 교포들이 하는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국에 가서 방송하려고 하는데, 이제 설교를 쓴 기록을 가져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 웃으면서 "나는 그러한 설교 대본을 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단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말이 한 시간을 말하려고 하면 한 시간을 말하게 되어있고 두 시간을 말하려고 하면 두 시간을 말하게 되어있고 세 시간을 말하려고 하면 세 시간을 말하고 다섯 시간 말하려고 하면 다섯 시간도 말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품을 하면서 깜짝 놀래요. "유명한 이제 통일교 목사 문선명이고 설교 대본을 써가지고 와서 방송을 했고 또 조용기 목사도 역시 설교 대본을 가지고 와서 그 설교 대본을 읽는 그러한 설교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된 것인지?" 너더러 목사라고 합니다. (2003. 6. 9.)*

정도령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